

2015. 7

2015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유럽의회 연수 결과보고서

-유럽 연합 · 오스트리아 · 독일 · 스위스 등 유럽 의회 방문-

목 포 시 의 회
(의회사무국)



I . 연수 개요 및 성과 1

1. 연수 개요 / 2
2. 연수 성과 / 6

II . 분임별 연수내용 및 결과 8

1. 1분임(유럽연합의회) / 9
2. 2분임(오스트리아 의회 및 문화·역사 탐방) / 16
3. 3분임(독일 의회 및 도시경관 탐방) / 30
4. 4분임(스위스 의회 및 자연경관 탐방) / 41
5. 공통과제(친환경마을 독일 보봉단지) / 51
6. 공통과제(경관보고서) / 57

III . 연수 소감문 59

1. 연수단장 인사말씀 / 58
 2. 개인별 소감문 / 59
-



I. 연수 개요 및 성과



1. 연수 목적

-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실태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관계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 향상
- 유럽연합의회 등 연방의회 구조 이해를 통한 지방의회에의 접목 가능성 탐구 등
- 생태 마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도출과 세계문화유산 관리 실태와 도시 경관·역사·문화 견학 등

2. 연수 개요

- 기 간 : 2015. 6. 14.(일) ~ 6. 23.(화) / 10일간
- 대 상 국 : 유럽 4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 연수인원 : 23명(도의회 3, 도본청 1, 시군의회 19)
- 연수내용
 - － 지방의회 제도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방안
 - － 지방의회 운영 및 회의 진행절차
 - －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운영 실태
 - － 유럽연합의회 운영현황 및 연방의회 현황
 - － 생태 마을 및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탐방 등
 - － 도시 경관·역사·문화 견학 등

3. 연수 일정

일 차	연수국가	연수지역	세 부 일 정	비고
1일차 6/14(일)	한 국 오스트리아		인천공항 출발 / 비엔나 향발 비엔나 도착	
2일차 6/1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국회, 비엔나 의회 및 시청 비엔나의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도시경관 벤치마킹	
3일차 6/16(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시의회 잘츠부르크 도시경관 벤치마킹	
4일차 6/17(수)	스위스	베른 인터라켄	스위스 연방의회 알프스 자연경관 탐방 및 융프라우 등정	
5일차 6/18(목)	독 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친환경 생태마을)	
6일차 6/19(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의회 도시경관 벤치마킹	
7일차 6/20(토)	독 일	하이델베르크	관광지 관리실태 및 문화 탐방	
8일차 6/21(일)	독 일	뤼데스하임	도시경관 벤치마킹 후 라인강 활용 및 경관조성 벤치마킹	
9일차 6/22(월)	독 일	비스바덴 프랑크푸르트	헤센 주의회 프랑크푸르트 출발 → 인천 향발	
10일차 6/23(화)	한국	인 천	인천 국제공항 도착	

4. 연수자 명단

소속	직위 (직급)	성 명	비 고
계		23명	
도의회사무처	입 법 지 원 관	김 양 수	단장
도의회사무처	의 사 담 당	김 황 희	
도의회사무처	주 무 관 (전 산 6 급)	박 오 수	
도 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행정5급)	송 태 현	
목포시의회	주 무 관 (7 급)	손 춘 원	
여수시의회	의사담당 (행정 6 급)	박 창 남	
여수시의회	주 무 관 (7 급)	이 광 술	
순천시의회	의 정 담 당	박 홍 파	
순천시의회	도 시 건 설 전 문 위 원	임 성 주	
광양시의회	주 무 관 (행 정 7 급)	이 강 재	
곡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행정5급)	한 승 일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장(행정5급)	이 응 호	
고흥군의회	의사담당(농업6급)	김 순 남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장(행정5급)	정 상 채	
강진군의회	의사담당(행정6급)	조 진 표	
해남군의회	의사과장(행정5급)	채 성 기	회장
영암군의회	주 무 관 (행 정 7 급)	김 철	총무
무안군의회	주 무 관 (7 급)	기 순 도	
영광군의회	의사담당(행정6급)	장 철 희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행정5급)	김 영 수	
완도군의회	주 무 관 (행 정 8 급)	김 완 주	
진도군의회	의사담당(행정6급)	김 기 형	
신안군의회	주 무 관 (7 급)	이 순 석	

4. 분임편성 및 분임별 과제

분임	분임편성	대상국가	대상기관	과제내용
1	영암군 김 철(조장) 도의회 김양수(단장) 도의회 김황희 도 정책기획관실 송태현 도의회 박오수	프랑스	유럽연합의회	연수국가 현황조사 유럽연합의회 현황 의회운영 관련 정보
2	여수시 박창남(조장) 해남군 채성기(회장) 여수시 이광술 곡성군 한승일 강진군 조진표 신안군 이순석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회 잘츠부르크 시의회	연수국가 현황조사 시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문화, 도시경관 탐방 정보
3	영광군 장철희(조장) 목포시 손춘원 광양시 이강재 장성군 김영수 화순군 정상채 고흥군 김순남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 주 의회	연수국가 현황조사 주 의회 조직 및 역할 문화도시경관 벤치마킹
4	완도군 김완주(조장) 순천시 임성주 순천시 박홍파 구례군 이용호 무안군 기순도 진도군 김기형	스위스	스위스 연방의회	스위스 국가현황 연방의회 운영현황 문화관광지 관리실태

※ 분임별 조장 책임 하에 자료 수집 및 사진 촬영, 자료 취합, 보고서 작성

-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가 주관하여 도와 시군의회의 직원 23명이 외국의 지방자치(의회)제도와 의회운영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역사·문화·도시경관을 직접 비교 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지원 역량 제고는 물론 도정 시책 발굴을 위한 지식 습득 기회가 되었음
- 사전 설명회를 통해 분임 편성과 분임별 임무를 부여하여, 연수전 방문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함
 - 분임별 부여된 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토록 함.
- 유럽 28개국이 연합한 “유럽 연합의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유럽 연합의회를 방문하여 3시간 동안 관계자의 설명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질문하는 등 충실한 연수가 됨.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회, 스위스 연방의회 등 각국 의회는 우리나라 의회 제도와 유사하였으나, “유럽 연합의회”의 경우는 연합의회 회원 28개국이 자국의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의회 운영 실태를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이슈가 되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 등을 거대 유럽연합이 어떻게 처리하는 가도 관심을 갖게 되었음.

- 공통과제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보봉 생태단지”를 방문하여,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배경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 자동차 없는 마을 조성 등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도시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도정시책 추진 시 이번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유럽의 경우 도심 중앙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친환경 정책, 자전거 도로가 자동차 도로와 인도 사이에 구분하여 설치된 점들은, 도시의 복잡함과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아울러 비엔나 시 1구역 전체의 건축물을 보면 17~18세기의 바로크 양식의 전통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 또는 복원되어 시 전체가 예술품이라 할 수 있었음
 - 연수자들은 우리나라의 한옥 보존과 한옥마을 조성이 소도시 뿐 아니라 대도시, 중도시에서 이루어져 문화와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생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이번연수가 큰 도움이 됨.
- 도와 시군 의회 관계 공무원의 국외 연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도 향후 업무추진에 큰 성과라 볼 수 있음.
- 또한, 이번 연수가 도·시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이 유럽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업무에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됨.



Ⅱ. 분임별 연수내용 및 결과



제1분임

1. 분임반 구성 및 연수과제

제1분임	대상국가	대상기관	연수 과제 내용
영암군 김 철(조장) 도의회 김양수(단장) 도의회 김항희 도 정책기획관실 송태현 도의회 박오수	유럽연합	유럽연합의회	유럽 연합의회 조사 의회운영 관련 정보 간담회 추진

2. 유럽 연합의회 조사

① 설립 역사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52년 9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총회(Assembly) 형식으로 처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설치되었다. 1958년에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총회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총회와 통합되었다가 1962년 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되었다.

② 구성과 조직

-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양대 핵심기구이다. EU 내에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회원국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곳은 유럽의회가 유일하다. 5년마다 유럽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며, 18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진 EU 회원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단 회원국 의회 의원직과 유럽의회 의원직을 겸임할 수는 없다.
- 각국별 의원수는 인구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총 751명을 선출하는 올해 선거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 수가 9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랑스(74명) 이탈리아 영국(각 73명) 순이다. 에스토니아, 키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 등은 각 6명으로 가장 적다.
- 조직은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에는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 1명과 부의장 14명이 있고 임기는 각각 30개월이며, 전문위원회는 총 19개가 있다. 또 교섭단체별로 위원회 의원과 좌석을 배정하는데, 현재 사회주의 단체 등을 비롯하여 10개 교섭단체와 1개 무소속 단체가 있으며 회원에는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의 수가 압도적이다.



③ 의회의 운영

- EU의회 의원들은 자국의회의 의원과 똑같은 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나라 사정에 따라 각기 월급이 다르다. 유럽의회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씩 1주간(5일) 정기 본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사무국은 브뤼셀, 분과위원회는 룩셈부르크 등에 산재해 있으며, 필요시 특별 본회의를 브뤼셀에서 개최한다.
-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20개 공식 언어(영어, 불어, 독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등)로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기록물도 20개 언어로 간행된다. 유럽의회는 의회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제안권이 없어 그 영향력이 적었으나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④ 의회의 기능 및 권한

- 입법 권한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co-decision)’을 가지고 있다. 공동결정절차 적용 분야는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농업, 수산업, 공동통상정책, 구조조정기금, 교통, 자유, 안전, 사법 분야가 신규 포함되는 등 기존 43개 분야에서 9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외교·안보 및 일부 내무·사법 분야는 여전히 이사의회의 권한이며, 유럽의회는 협의 및 권고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의회의 권한은 1987년 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와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그리고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과 2003년 니스조약(Treaty of Nice)을 거치며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9년 리스본조약 발효를 계기로 이사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 감독 통제권

- 유럽의회는 집행위원장을 선출할 권한과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motion of censure)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집행위원 전체를 불신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회가 집행위원회를 압박할 목적으로 불신임권 사용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1999년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앞서 자크 상테르(Jacques Santer) 위원장 및 집행위원 전원이 사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불신임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가 가능하고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는 의장국 각료가 참석한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집행위원회는 매년 활동 계획과 활동 결과 보고서, 예산안 집행 기록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의회 상임위는 해당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조사권 행사 사례는 매우 드물다. 유럽연합 법 시행상에서 있을 수 있는 부실 행정이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ombudsman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예산권

- 유럽의회는 예산 분야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议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3. 유럽 연합의회 방문 간담회

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5. 6. 19. /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 참 석 : 25명(연수단 23, 관계자 2)
- 내 용 : 연합의회 운영상황 청취, 질의 답변 등



② 질문 및 답변내용

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은 ?

답) 8개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함(우리나라 의회와 동일한 절차임)

문 각 국가별로 언어가 다른데 공통언어는 무엇인지 ?

답) 각국 언어로 발언하며, 통역사가 700명 있음

문 유럽 연합의회에서 주로 처리하는 안건 및 최근 처리안건은 무엇이 있는지 ?

답) 유럽의회 회원국 전체가 공통이 되는 안건을 유럽연합에서 처리하며, 최근 우유가격 조정 안건과 스마트폰 충전기 표준화 안건, 비닐 봉지 사용금지 법안 등을 처리함.

문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

답) 동일 국가별로 앉지 않으며, 영문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좌석이 배치됨

* 본회의장 좌석배치도(영문 알파벳 순으로 지정)



문 유럽연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

답) 임금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회와 동일하게 의정활동비 및 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됨, 년 20,000유로 정도 됨.

문 유럽 연합의회 운영을 가입국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원하는지 ?

답) 각국의 경제나 문화 차이가 있어 상정된 안건 중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이 많음, 또한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에 맞는 정책을 자국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음

문 유럽연합의회의 연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

답) 연 145억 유로정도 소요됨

4. 연수소감 정책제안

- 유럽연합은 출범 후 확대, 성장해가면서 거대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각 주권국가를 하나로 아우르려다 보니 이견차가 생겼고, 때론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거대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부작용들 또한 야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이처럼 확대와 성장을 거듭해 나가던 유럽연합은 현재 하나의 전환점에 서있다. 가장 쟁점 중 하나인 터키의 가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거대 공동체로 도약할 수도 있고,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채 유명무실한 껍데기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 우리는 이러한 유럽연합을 그저 먼 남의 나라 일이라 여기며 무관심할 수만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FTA를 협상 중인 것만 보아도 그들이 우리의 손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생활면면에까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들과 좋은 파트너이자 공정한 경쟁자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형태로 성장한 유럽연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 1분임 활동사진



△ 3분임 단체사진



△ 프랑크푸르트 보봉단지(친환경마을)

제2분임

1. 분임반 구성 및 연수과제

제2분임	대상국가	대상기관	과제내용
여수시 박창남(조장) 해남군 채성기(회장) 여수시 이광술 곡성군 한승일 강진군 조진표 신안군 이순석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회 잘츠부르크 시의회	연수 국가 현황 조사 시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문화, 도시경관 탐방 정보

2. 연수 국가 조사 【 오스트리아(Republic of Austria) 】



① 국가 기본정보

- 국 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
- 수 도 : 빈(Vienna, 약 173만명)
- 인 구 : 약 822만명

- 면 적 : 83,871km²(한반도의 약 2/5)
- 언 어 : 독일어
- 민 족 : 게르만계(85.8%), 소수민족(2.9%), 상주외국인(11.3%)
 - ※ 상주외국인 : 구 유고슬라비아인(40%), 독일인(15%), 터키인(13%), 기타(32%)
- 종 교 : 기톨릭(72%), 개신교(6.1%), 이슬람교(4.9%), 무종교(12.2%), 기타(4.8%)
- 정치현황
 -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9개주)
 -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 의회형태 : 양원제 (하원 183석, 상원 61석) * 각 임기는 5년
 - － 대외정책 : 영세중립
- 경제현황
 - － GDP(명목) : 4,361억불('2014 IMF 기준)
 - － 1인당 GDP : 51,183불('2014 IMF 기준)
 - － 교역규모 : 2,554억 유로 (수출 1,254억 유로, 수입 1,300억 유로)
 - － 산업구조 : 서비스업(68.7%), 제조업(19.3%), 건설업(6.8%), 농업(1.5%)
 - － 경제성장률 → 0.4%, 물가상승률 → 2.0%, 실업률 → 4.9%
- 연평균 기온 : 7-9C / 강우량 700-2,000mm

②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892. 6. 23 (조·오 우호통상조약 체결)
 - ※ 1963. 05. 22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 교역현황(2013, 우리기준)
 - － 수출 : 6.07억불(반도체, 무선전화기, 승용차 등)
 - － 수입 : 13.82억불(반도체, 자동차부품, 재생섬유 등)

③ 오스트리아 역사

- 오스트리아는 게르만계 프랑크 왕국 시대에 동남쪽 군사 거점으로 세운 식민지 오스트마르크에서 발전한 나라다.
- BC 8세기 무렵부터 할슈타트문화의 중심이 되어 고대에 켈트인과 라틴인, 슬라브인이 이곳으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형성되었다.
-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가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17세기에는 전쟁과 페스트, 오스만투르크의 공격 등이 이어져 고난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1815년 빈 회의 이후 독일 연방에 속해 있다가 독일권에서 제외된 후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설립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영토를 잃은 오스트리아는 1938년 독일에 합병되고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영세 중립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1979년 빈에 국제연합 도시가 건설되었고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3. 연수 국가 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

① 오스트리아 정부 형태

-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cy)
 - － 의회민주제도를 기본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의 및 대통령 직선제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
- 연방공화국(Federal State)
 - － 오스트리아는 9개의 자치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각 자치주는 각각의 독립적인 행정부, 의회를 구성

② 오스트리아 의회 현황

○ 양원제

- 상.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은 각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각주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며, 하원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

* 하원 우위

-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은 상.하원이 각각 행사하나, 하원이 우월하며 내각 불신임권과 국정조사권 등은 하원이 보유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방문사진>

○ 상원 (Bundesrat : The Federal Council)

- 구성 : 62명 (9개주의 대표로 구성)

*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주별로 배분

* 의 장 : 6개월마다 각주별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교체, 선임

- 선거 방법 : 각 주의회에서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간선

- 임 기 : 각 주에 따라 다름 (5년 또는 6년)

- 권 한 : 법안 제출권, 입법 관여권, 국정감사권

*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8주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하원의 재의결시 동 이의는 실효

○ 하원 (Nationalrat : The National Council)

- 구성 : 183명 (인구비례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

* 제1의장, 제2의장, 제3의장 : 관례적으로 제1의장과 제3의장은 의회 다수당이, 제2의장은 제2당이 수임

- 선거방법 : 전국을 9개주로 나눈 광역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작성한 후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출

- 선거연령 :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8세

※ 2007.7.1부터 기존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9세' 에서 하향 조정하여 유럽내 가장 선거연령이 낮음

- 임 기 : 5년
- 권 한 : 내각 불신임권,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조약체결 및 주요 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개정안 의결권
- * 하원의 다수당 당수가 단독 또는 연립의 형태로 조각을 하여,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
- 양원 합동회의(Bundesversammlung)
 - 양원 합동회의는 대통령 취임, 대통령 탄핵 및 전쟁선포 등의 경우에 대통령 또는 총리에 의해 소집되며, 의장은 상.하원 의장이 교대로 수임
- 의회주의 보완(직접 민주제적 요소)
 - 국민발의권 : 10만명의 투표권자 발의로 하원에 법률안 제출권 보유
 - 국민소환권 : 하원의 제의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 탄핵 가능
 - 국민투표권 : 하원이 의결하는 경우 하원을 통과한 주요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확정, 헌법 개정안 확정도 국민투표에 의거

③ 오스트리아 선거제도

- 오스트리아의 선거제도는 1920년 헌법에 기초한 비례대표제라는 독특한 제도
- 1992년 개정 선거법
 - 선거구를 9개 자치주에 상응한 9개 대선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선구를 43개의 소선거구로 구분
 - 정당에 투표하던 방식을 개정, 각 개인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 선택의 폭 확대
 - 전국적으로 4%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금지함으로써 소규모 정당 난립금지
- 선거권은 16세 이상,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은 35세 이상)

- 선거권 제한 : 1년이상 금고형을 받은자는 수형기간 종료 후 5년간
제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오스트리아의 투표 및 투표계산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Hare
방식"과 "d'Hondt 방식"으로 불리는 복잡한 계산 방법을 사용

④ 비엔나시의 정치구조

- 비엔나시는 연방수도(federal capital)이자, 연방 주(federal
province)이며 도시(municipality)임.
 - 즉, 수도로서 오스트리아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며, 주로서의 권한과
시로서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음.
 - 주 차원의 법률 입법은 주의회(Vienna Provincial Parliament) 에서
이루어짐.

⑤ 비엔나 시정부 조직

- 시의회(Municipal Council)
 - 주민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행정감시기관
 - 예산의 심의 확정, 조례 등 자치입법
- 시 위원회(Municipal board, City senate)
 - 시 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에 의해 선출
 - 의회 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정책안 입안 및 사전 자문
 - 의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한정된 정책 결정
- 시장 (The Mayor)
 - 시장은 시의회에서 선출
 - 시 행정에 있어서 집행 책임자

⑥ 비엔나 주정부 의회(Vienna Provincial Parliament)

- 의원수: 100명(시의원이면서 주정부 의원)
- 임 기: 5년,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 주정부는 주지사와 12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국무위원은 베를린에서는 'Senate'로 불리지만, 비엔나에서는 'City Councillors'로 지칭됨. 일반 행정은 주 행정부에서 수행.
 - 이들 국무위원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의회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선출.



〈비엔나 시의회 방문 사진〉

- 의회의 기능과 역할
 - 시 집행부 감시 및 견제
 - 시장, 부시장 및 시 행정 각료(city councillors) 선출
 - 시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 의회규칙 결정 및 행정기관 권한의 설정 배분 등 입법
 -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등 처분, 용자
 - 시 행정 권한 일부의 다른 하위 기관으로의 위임 범위 결정 등
- 의회 소집
 - 의회는 4명의 의장을 두고 있음.
 - 주의회 회의는 제1의장이 소집하나, 시의회 회의의 경우에는 시장, 1/4 이상의 의원, 정당 요구에 따라 집회할 수 있음.
- 의회 운영 현황
 - 의 원 수 : 100명으로 란타주정부의 의원 겸직
 - 의 장 : 시장이 의장직을 겸하며 두분야 영역의 역할을 담당 하지만 보수는 한쪽만 받음

- 정 당 : 사회민주당(49명), 녹색당(11명), 자유당(27석), 국민당(13명) ※ 정당별로 수수료(회비)를 받음
- 임 기 : 5년
- 운 영 : 의석을 절반이상 차지하는 정당이 시 운영을 책임지지만 현재는 제1당이 절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다른 당과 연정하여 의회와 시정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보좌관 : 시의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며 보좌관(행정관)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며 급여는 시에서 지급함
- 안전심의 : 전문위원회별로 안전을 심의함
- 시정질문 : 1인당 20분으로 제한하며 19분쯤 되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종료시간을 알리고 20분이 되면 자동 Off됨

4. 역사·문화 시설 등 탐방

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비엔나”(Wiena)

-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오스트리아의 9개 주(州) 가운데 하나이며 교외지역을 통합한 대도시권 인구 240만의 오스트리아 최대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임. EU에서도 10번째로 큰 도시로 UN이나 OPEC과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음
- 영어로는 비엔나(Vienna), 체코어로는 비덴(Vide.), 헝가리어로는 베치(Becs)라고도 함. 도나우강(江) 상류 우안에 있는 유럽의 고도(古都)임
- 수백년 동안 대제국의 수도였으며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정치의 중심지였으며 중부 유럽을 동서방향으로 달리면서 민족·기

후·식생 등의 경계를 이루는 알프스·카르파티아산맥을 관류하고 있음

- 비엔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책이 팽배하여 Red Vienna로 불리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기를 맞음. 1960년대 침체기를 거쳐 1989년 냉전 종식이후 현재까지 중흥기를 맞고 있음
- 2,500년 고도인 비엔나의 도심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음
- 베토벤(Beethoven)과 모차르트(Mozart) 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양식의 건축물로 꼽히는 슈테판 성당(Stephansdom)과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쉐부른 궁전(Schloss Schonbrunn), 빈 공원(Wienerparks) 등이 유명하며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빈의 숲은 건축 등으로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05년 그린벨트 25km²로 지정되어 있음.

▷ 비엔나(빈) 시립공원

1862년 문을 연 영국식 정원의 시립공원은 비엔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

요한스트라우스, 슈베르트 등 12명의 기념상이 공원 내부에 흩어져 있으며, 요한스트라우스의 연주회가 열렸던 쿠어살롱(Kursalon)이 나침반 역할을 한다.



▷ 비엔나(빈)의 궁전

600여 년 동안 유럽 최고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궁으로 현재 왕궁 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모습을 드러내는 빈 소년 합창단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이전에는 중세시대의 성이었지만 왕가의 권력이 증대되면서 왕가의 주거공간으로 변모하였고 증축을 거듭하여 오늘의 모습에 이르렀다.



13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때 지금의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이루었으나 191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종말 이후 왕족은 궁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1946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국제적인 회의장소로 쓰인다.

▷ 성슈테판 성당

137m에 달하는 첨탑이 있는 거대한 사원으로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양식의 건물이다. 그 웅장함에서 신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노고의 땀을 엿볼 수 있다.

빈의 상징으로 6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약 1359년에 완성되었다.



사원의 내부는 석조 부조의 설교대가 있으며,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매우 아름답다.

1450년에 만들어진 지하묘지에는 흑사병으로 죽은 약 2,000구의

유골과 합스부르크 왕가 유해 가운데 심장 등의 내장이 보관되어 있다. 빈의 가장 변화한 거리인 케른트너 거리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차르트의 결혼식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기에 더욱 유명해졌다.

▷ 케른트너 거리

비엔나 관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이다. 서울의 명동이나 인사동처럼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은 들리는 관광 필수 코스이며, 비엔나 시민들도 여가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보내는 변화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작하여 슈테판 대성당 광장에 이르는 비엔나의 중심가이다.



고품질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점들이 즐비하며 보행자 전용 거리인 그라벤과 콜마르크트로 이어진다. 쇼핑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리로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상품, 가치 있는 골동품 또는 재미있고 앙증스러운 기념품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멈출 수 없게 한다.

② 모차르트“생가”가 있는“잘츠부르크”

- 잘츠부르크(Salzburg)는 오스트리아 서부에 있는 도시로 잘츠부르크의 주도이며 바로크 양식의 건축과 다양한 역사 모차르트의 출생지및 알프스로의 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Salz"는 소금을 뜻하는 독일어이며, 따라서 잘츠부르크라는 이름은 “소금의 도시”를 의미하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은 주변산에서 채굴한 소금을 수송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했음

-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도시는 다행히 연합군의 폭격으로부터 비록 도시의 교량 성당의 돔 등은 파괴 되었지만 바로크 양식의 많은 건축물 들은 손상되지 않아 도시 자체의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몇 안되는 예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

▷ 모차르트 생가

세기의 작곡가이자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1757년 1월 27일)가 태어난 곳으로 쾰츠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이다. 모짜르트의 가족은 그가 열일곱 살이던 1773년까지 이곳에서 살았는데, 현재 이곳에는 모짜르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과 그의 자필 악보, 가족 초상화, 서신 등이 전시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을 포함해 매년 수천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 각 층별로 1층에는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침대, 피아노, 악보 등이 2층에는 모차르트와 그의 오페라, 3층에는 모차르트의 가족들, 4층에는 쾰츠부르크에서 생활하던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 게트라이데 가세 (Getreide Strasse)

쾰츠부르크 구시가지에 있는 게트라이데 가세(Getreide Strasse)는 쾰츠부르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명 쇼핑거리이다. 이곳은 예쁜 간판으로 유명한데,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가게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곳인지 알 수 있어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이곳의 거리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진작가들이 많아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팔츠부르크의 모자와 전통 의상을 팔고 있는 가게가 불만하며 최고의 맛으로 유명한 모짜르트 초콜렛은 친구와 가족들을 위한 선물로 인기 있다. 이 거리에는 팔츠부르크 최고의 명소 모짜르트 생가가 있는데, 노란색의 6층 건물로 늘 사람들로 붐빈다.

5. 연수소감 및 정책제안

① 민주시민의식으로 문화유적의 철저한 원형 보전

- 연수지역(유럽)의 경우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도 자신들의 역사의식과 문화유적을 철저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함.
- 오랜 전통과 역사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적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지만 문화유적 속에 담겨진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거리로 잘 포장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차르트라는 음악가를 국가 전체의 요소 요소에 녹여 유적지, 초콜릿, 생가 등 많은 사업에 반영하여 이로 인한 가치상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명 영화·광고 등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② 사람을 배려하는 유럽의 교통체제

- 연수지역(유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트램과 자전거 등 사람 위주의 교통체제임.
- 우리나라의 교통체제, 특히 도로정책은 도로 교통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 중심의 시설확충이 대부분임.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함.

③ 시민, 시정부, 시의회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도시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정책이 입안된 것은 1974년 인근 wyhl(빌)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포도밭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협의체가 대안에너지 운동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여 배척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시의 친환경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킨 시정부 및 시의회의 결단도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프라이부르크의 높은 일조량, 양질의 바람, 바이오가스 생산에 유리한 흑림지대 목축업의 발달, 소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 등 천혜의 자연환경도 프라이부르크가 친환경 도시로 성공하는데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 연수단은 프라이부르크 방문을 통해 친환경 정책의 성공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정부, 시의회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분임 활동사진



△ 비엔나 시청 앞



△ 시내 전차



△ 2분임 단체사진

제3분임

1. 분임반 구성 및 연수과제

제1분임	대상국가	대상기관	연수 과제 내용
영광군 장철희(조장) 목포시 손춘원 광양시 이강재 장성군 김영수 화순군 정상채 고흥군 김순남	독일	헤센 주 의회	연수 국가 현황 조사 주 의회 조직 및 역할 문화도시경관 벤치마킹

2. 연수 국가 조사 - 독일의 현황

① 기본현황

- 국가명 :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위 치 : 서유럽
- 면 적 : 356,910km²(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 기 후 : 온대성, 연간 섭씨 -0.8~19.5도, ('13년 연평균 9.1도)
- 수 도 : 베를린(Berlin)
- 인 구 : 8,100만 명, (독일인 91.5%, 터키인 2.4%, 기타 6.1%)

- 주요도시 : 베를린(338만명), 함부르크(173만명), 뮌헨(139만명),
 쾰른(102만 명), 프랑크푸르트(69만 명)
- 민족(인종) : 게르만족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카톨릭(34%), 개신교(34%), 이슬람(3.7%), 무교 및 기타(28.3%)
- 건국일 : (통일기념일) 1871.10.3. *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② 정치현황

정 체	연방공화제(16개 주)
정 부 형 태	의원내각제
의 회 구 성 ('13.9. 22.)	총 631석 <기민/기사연합(CDU/CSU) 311, 사민당 (SPD) 193, 좌파당(Linke) 64, 녹색당(Gruene) 63>

③ 경제현황

G D P	3.8조불
1인당 G DP	46,890불
경제 성장률	0.7%(12년), 0.4%(‘13년) 1.2%(‘14년 3분기)
실 업 률	6.7%(‘12년 12월), 6.7%(‘13년 12월), 6.3%(‘14년 11월)
물가 상승률	2.0%(‘12년), 1.5%(‘13년), 0.6%(‘14년 11월)
화 폐 단 위	유로(Euro)
환 율	1 유로 ≒ 1,365.14원(‘14년 12.17일 기준)
산 업 구 조	서비스업 71.2%, 제조업 28.0%, 농업 0.8%
무 역 규 모	2.7조불 (수출 1.5조불, 수입 1.2조불)
주요 교역품	주요수출품 : 자동차 및 기계류, 화학제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의약품 주요수입품 : 기계류, 자동차, 화학제품, 광물, 원유 및 가스

④ 우리나라와의 관계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 1883. 11. 26.
- 상호 국가승인 : 1955. 12월
 - 1958. 8월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 공관장
 - 주독 김재신 대사(12. 9월 부임)
 - 주한 독일 대사 : Rolf Mafael 대사 (12. 7월 부임)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4)
 - 수출 : 76억불(자동차, 무선전화기, 선박 등)
 - 수입 : 213억불(자동차, 직접회로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 투자현황(누계, 신고기준)
 - 대독투자(2014. 9월 기준) : 45억불(956건)
 - 대한투자(2014년 기준) : 11억불(1836건)

2. 연수 국가 정치제도[독일 - 주정부 및 주의회]

- 1990. 10. 3.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5개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

① 주 정부(Landesregie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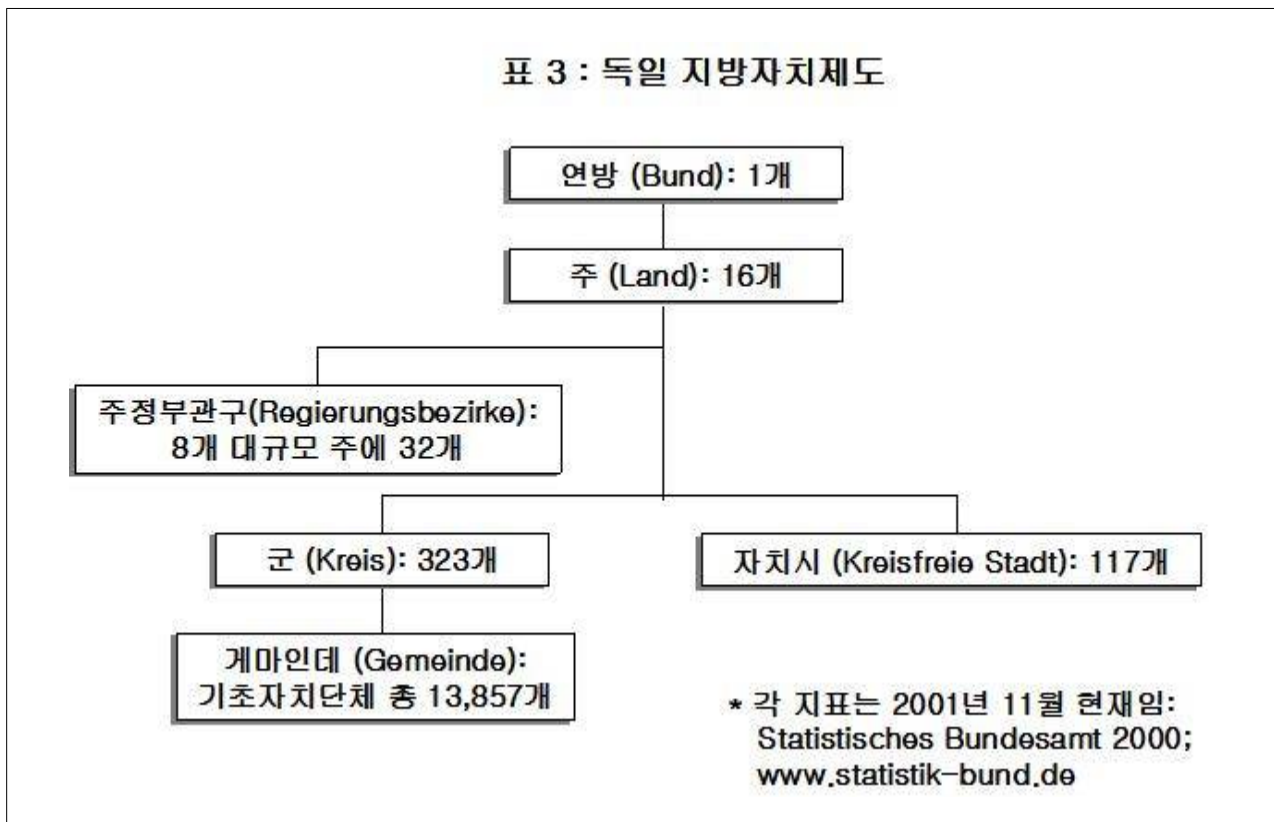
-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 및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처로 구성
-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바, ① 기본법 제 83조에 따른 주정부 고유 업무, ② 제85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위임된 업무, ③ 제91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분류

-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Kreis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Gemeinde로 구성

② 주 의회(Landtag)

- 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각 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반드시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의무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의원으로, Kreis의 경우는 40~100명, Gemeinde의 경우는 10~60명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

③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군(Kreis)**

- 군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의 연합체이자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주의 하위 행정기관으로서 중앙과 게마인데를 잇는 중간 자치단체임.
- 기본법에서 게마인데는 전권한성(Allzuständigkeit)을 보장받고 있으나, 군은 그러한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여 군은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함.
- 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연방 및 주의 위임사무도 처리함.
-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인 의회(Kreistag), 합의제 행정기관인 이사회(Kreisausschuß), 집행기관으로서 국가의 행정관청도 되는 수장(Landrat) 또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관리인(Oberkreisdirektor) 등이 있음.
 - 군 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
 - 의 회 : 주민선출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이며 군의 최고기관임
 - 위원회 : 합의제기관이며 의결기능 및 행정기능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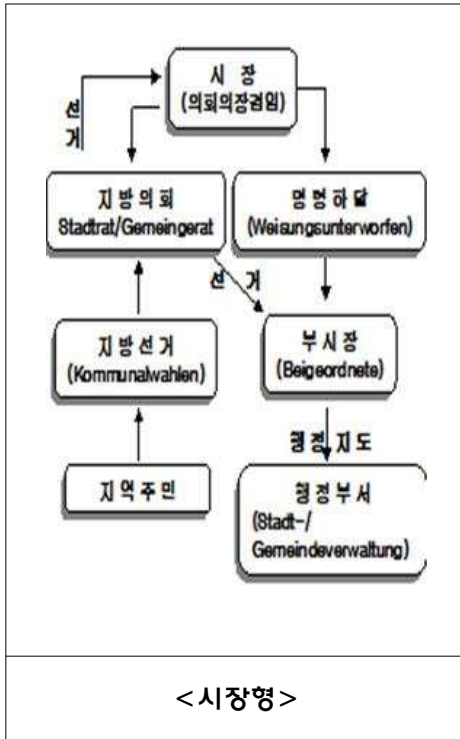
▶ **게마인데(Gemeinde)**

- 연방기본법이 정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받음.
- 게마인데 가운데 일정한 인구 이상의 도시적 단체를 시(Stadt)라 호칭하고 있으나, 법적 명칭은 아님.
- 군의 하급 자치체인 게마인데와 군으로부터 독립한 자치시는 연방주(聯邦州)로부터 자치행정감독, 위임사무의 처리, 기능배분, 내부조직, 군에의 분담금 지불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구 4~8만 이상의 시(Stadt)가 자치시(Kreisfreie Stadt)로 승격하나, 근래에는 인구 2만 정도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임.
- 게마인데는 가장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즉 지역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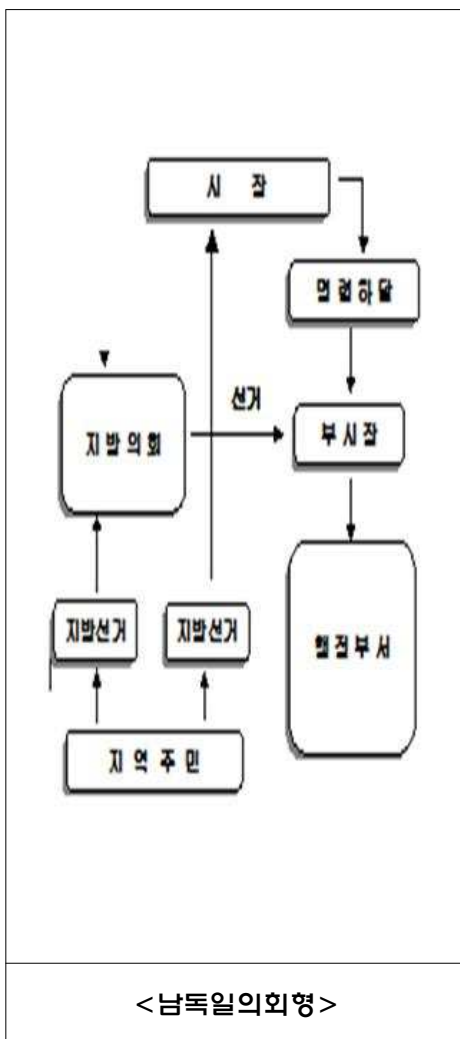
대부분 사항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제1차적 급부 주체로. 주민의 교육, 사회, 교통·운수, 소방 등 광범위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도로·가로·공원 등 각종 시설을 건설·유지·관리하며,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을 책정하고 집행하며 또한 연방주로부터 많은 위임사무를 받아 처리하기도 함.

④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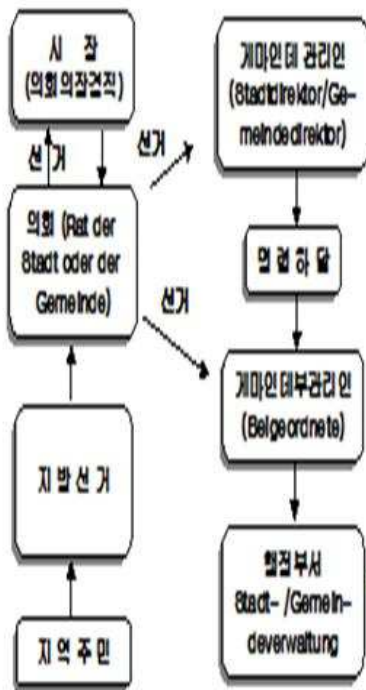
	○ 시의회는 대부분 모든 정파를 고려한 명예직 회원으로 구성 ○ 집행기관(지방행정)과 의회(지방의회)가 상호 분명하게 분리된 2중적 구조에 입각한 합의제적 집단지도체제로 의회의 경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이사회 위원과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은 시장이 되며, 시장은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책임 - 의회와 집행기관이 엄격히 분리 ○ 의회는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준비하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 ○ 이 유형은 헤센주와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자치시에서 실시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은 이사회, 지방의회, 시장임.
<이사회형>	



- 시장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기관으로 정립되어 있는 2중적 단원제에 입각한 제도
- 시장이 직접 선거가 아닌 평의회에서 선출—그러나 최근 라인란트-팔츠주와 자르란트주가 시장을 직접 선출
-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게마인데와 군, 그리고 자르란트주에서 시행되던 형태로, 주된 특징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원들이 시장과 부시장단을 선출
- 시장과 부시장단은 집행기관을 담당하며, 동시에 시의회 의장으로서도 역할을 수행
- 시장은 강력한 지위를 갖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을 통솔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각각 직접 선출하는 제도
- 직선 시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최종결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시를 대표
- 즉 시장은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할도 강력한 점이 특징. 임기동안 의회를 지배하며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은 독립적 기관의 성격도 가지는 동시에, 시장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분명해지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주에서 검토·도입하는 추세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지였던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 주에서 받아들인 형태로 강력한 시장형 조직체계를 특색으로 하며, 미국의 영향으로 기관대립형의 제도라고 통칭하기도 함.
-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작센주도 이 제도로 개정하였고, 1993년부터 작센-안할트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도 시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방식으로 개정함



<북독일의회형> - 관리형

<도시국가형>

- 주민이 직접선거로 구성한 의회는 의회의 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시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지만, 명예직으로서의 기능에 한정
- 시장은 게마인데 행정을 통할하는 권한이 없으며,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지시권한도 없음. 그러나 시장은 게마인데 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의회 소집권을 갖고 의회의 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음.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약간 우월한 위치
- 의회는 게마인데의 지휘·감독자로서 게마인데관리인과 부관리인을 임명함.
- 게마인데 관리인이 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시장은 의회만 담당하며, 의회와 수행. 또 의회에 행정상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게마인데관리인에게 제반 행정 전반에 대한 보고와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권한을 갖음. 게마인데관리인은 시장에게 행정사무를 보고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됨.
- 독일 북부지방의 니더작센주와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 의회와 게마인데관리인의 주요 양대 기관임.

-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은 하나의 도시이면서, 그 자체가 주로, 일면 주의 기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를 지님.
- 이 세 도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시행정은 군행정체제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논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인 것이 특징

⑤ 헤센주 현황

- 주 명 : Hessen (Wiesbaden) 📄 www.hessen.de
- 면적·인구 및 GDP(2012) : 21,114km², 602만 명, 2,297억 유로
- 주정부 구성
 - 주 총 리 : Volker Bouffier (기민당) / 기민당+녹색당 연정
 - 의회임기 : 5년(차기 선거 2018년)
- 일반개황
 -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이며, 유럽의 금융·경제중심지인 Frankfurt시가 소재
 - 기타 주요 도시 : Wiesbaden, Kassel, Darmstadt
 - 주요산업은 화학, 전자, 고무, 피혁, 기계, 자동차 등이며 임업과 축산업도 발달
- 1987년까지는 사민당이 단독집권, 1991년 이후 기민당과 사민당이 정권교체, 2003. 2월 선거에서 기민당이 사상 최초로 과반수 획득하여 단독집권
- 2009. 1월 선거에서 기민당+자민당 연정 출범
- 2013. 9월 선거 이후 기민당+녹색당 연정 출범

4. 연수 소감 및 정책제안

①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 각 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나라가 만들어온 역사적 산물이기에 어느 나라의 지방자치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오늘날의 지방자치와 사뭇 다르지만 조선시대에도 향청(鄉廳)과 향회(鄉會) 제도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도 비록 식민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도회(道會)·부회(府會)·읍회(邑會) 제도가 존재하는 등 우리의 현 지방자치가 서구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만들어진 제도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 그러기에 우리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 만들어온 지방자치제도의 장점과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체득한 국가에서 만들어낸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잘 묶어 우리와 체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② 연수에서 느낀 시민의식의 중요성

- 그런 면에서 이번 연수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지방자치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인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사성폐기물장 도입, 화장장 설치 등 주민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례가 있었으나 주민투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 빠른 정책 결정의 필요, 경제적(예산적) 부담,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주민 간의 갈등 등 여러 요소들이 주민투표를 주저하게 만들지만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있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것만큼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
- 따라서 주민투표법으로 주민투표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자기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과정에서 만나본 유럽의 시민들,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일 보봉단지의 시민단체, 유럽의회 관계관들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새삼 부럽게 느껴진다.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겪어온 역사가 다르고 처한 현실이 다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주민으로서의 권리보다는 주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자세는 분명 부럽다.
-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4년, 민선자치가 새로이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어느덧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년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 이번 8박 10일간의 유럽 연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 더욱더 고민하게 만든다.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가장 큰 적인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주민으로서의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는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주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수는 힌트를 주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제도가 아닌 의식을 배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 보길 소원한다.

▽ 3분임 활동사진



△ 3분임 단체사진



△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제4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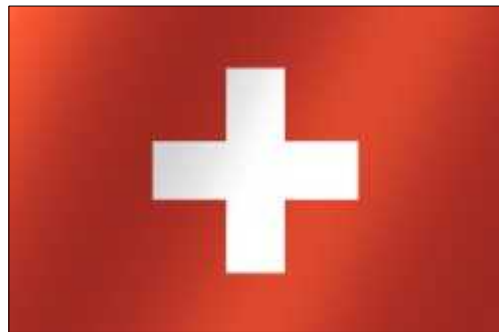
1. 분임반 구성 및 연수과제

제4분임	대상국가	대상기관	연수 과제 내용
완도군 김완주(조장) 순천시 임성주 순천시 박홍파 구례군 이응호 무안군 기순도 진도군 김기형	스위스	연방의회	연수 국가 현황 조사 주 의회 조직 및 역할 문화·도시경관 벤치마킹

2. 연수 국가 조사 - 스위스 현황

① 기본현황

- 국가명 : 스위스(Swiss Confederation)



- 인구 : 7,581,520명
- 면적 : 41290km²
- 수도 : 베른
- 기후
 - 스위스의 기후는 유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로서부대서양, 동 부대륙, 북부극지 및 남부 지중해 등 유럽의 4대 기류의 영향을 두루 받고 있다.

- 이 같은 외부 요인과 함께 산지에서 고원에 이르는 지형의 급격한 변화 등 지역에 따라 날씨와 기온의 기복이 크다. 특히 산악지대에서는 여름에도 눈을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지역에 따라서는 여름이라도 방한용 스웨터가 필요하다. 스위스는 봄부터 여름이 여행과 휴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긴 하지만 산악지대이기 때문인지 기상변화가 매우 심하다.
- 보통 여름에는 20-25도, 겨울에는 2-6도, 봄, 가을은 7-14도 사이를 오르내린다.
- 언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 역사
 -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중세에 프랑크왕국, 신성로마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가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국가의 기원이 된 영구동맹을 맺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독립을 승인받았다. 정식명칭은 헬베티카 동맹(Confederation Helvetica)이고, 독일어로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프랑스어로 'Confederation Suisse', 이탈리아어로 'Confederazione Svizzera'라고 한다. 통상적으로는 스위스연방(SwissConfederation)이라고 표현한다.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리히텐슈타인·오스트리아,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에 접한다. 행정구역은 26개주(canton)로 이루어진다.

② 경제·사회

-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치에 끌려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스위스를 찾는다.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루체른호(湖)·브리엔츠호·마조르호·루가노호 등의 호수와 루체른·인터라켄·로잔·로카르노·루가노 등의 호반도시를 들수 있다. 또 하나의 관광 중심은 산악으로 마터호른 산록의 체르마트, 엥가딘의 장크트모리츠, 다보스 등의 휴양지이다. 관광수입은 무역수지의 적자를 메우고, 경제를 윤택

하게 해주므로 교통기관의 정비, 8,000개에 이르는 숙박시설 활용, 400명이 넘는 가이드의 교육, 산막(山幕)의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여름의 알피니스트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동계(冬季) 스포츠를 위해서도 철도에서 분기하는 많은 등산철도와 리프트가 부설되어 있다. 2005년 관광수입액은 11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11위를 기록했으나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 스위스의 사회는 자유와 보수(保守)라는 두 요소가 특색이다. 계급적인 차별은 적으나 동업조합(同業組合)과 코문(공동체적 지역 사회)을 중심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1911년에는 상해·질병에 대한 연방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이 실시되었다. 1947년 7월에는 노년·과부 보험이 제정되어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1951년에는 실업보험법이 연방법으로(사적·공적 보험도 포함) 정해졌다.
-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인구의 결혼시기는 비교적 늦은 편이다. 2001년 기준으로 평균결혼연령은 남자가 30.6세, 여자가 28.0세이다. 혼인율과 이혼율은 모두 유럽의 평균치 이상이다. 많은 스위스 부부들은 먼저 동거를 시작했다가 첫 아이가 출생한 직후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인들은 평생동안 평균적으로 2번의 결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결혼한 지 3년안에 이혼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 100명당 38.5명에 달한다. 국제결혼 비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 국경일로서는 8월 1일의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이 날은 부근의 가장 높은 산에서 화톳불을 피우고 남녀노소가 연방이나 주의 마크가 든 지등(紙燈)을 들고 행렬을 지으며, 기념강연·예배·합창 등을 한다. 3대 축제로는 제네바 축제(에스칼라드), 바젤의 파스나흐트(Basler Fasnacht), 취리히의 봄 맞이 길드제(祭)가 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문화축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상트 갈렌의 어린이축제(Kinderfest), 뢰틀리 사격대회, 베른 양파 시장, 전쟁 기념일, 몽트뢰의 페스티발, 우르내쉬의 질베스터클라우제 축제, 셴류레지에의 말쇼(Marche-Concours), 뇌샤텔의 화인 페스티발, 장크트 모리츠 요리 축제등이 있다.

③ 외교

- 지금까지 스위스는 영세중립이라는 입장 아래 중개자의 역할을 해왔으나 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정세를 근거로하여 국제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새로운 중립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2년 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개방적인 외교 정책을 지향하고 유엔 내에서 국가적 위상을 고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지속할 수 있다는 2002년 당시의 다이스(Deiss) 외무부 장관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스위스 국민당의 블로허(Blocher)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민들은 스위스 외교사의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과 7개분야에 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2000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67.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역내 외교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 구주안보협력기구(OSCE) 내에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NATO 공습 전 코소보 난민 5만여 명을 받아들이고 1999년에도 24,912명을 접수하였으며 전후 복구를 위해 1999년에만 1억 천만 스위스 프랑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스위스는 UN 가입 이전부터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한국 휴전중립국 감시위원단 참여를 시작으로 구 유고지역,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레바논, 키프러스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대외개발협력에도 적극적인데, 모잠비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페루, 러시아, 인도, 베트남, 네팔 등 20여개국에 원조하고 있다.

③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스위스는 1962년 3월에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북한과는 1974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과 스위스 양국간 무역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1971년에 ERPI 투자촉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어 1975년 항공협정, 1977년 공업소유권 협정, 1979년 사증 면제협정,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1990년 정기항공운항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 1995년 항공협정, 1999년 한·스 무역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되었고 2006년 9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 한국과 스위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배경으로 매해 교역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1993년에 8억 1천만 달러였던 교역액은 2006년에는 21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액은 8억 4,0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3억 1,900만 달러로 무역수지 4억 7,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것은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TV, DVD Player), 반도체 및 전자부품, 타이어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다.

3. 스위스의 연합의회

① 의회의 구성

- 스위스의 의회(Parlament, Parliament)는 연방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 등 양원으로 구성되며,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하원의장이 양원 합동회의의 의장).



<스위스 연방의회 방문 사진>

② 의장단과 회기

- 스위스의 상·하 양원 의장은 매년 마지막 회기 첫날 1년 임기로 선출된다. 정기회의는 연 4회(3월·6월·9월·12월) 개최되며, 회기는 각 3주간이다.

③ 상원과 하원

- 상원(Ständerat, Council of States)은 20개 주(canton)에서 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6개 반주(半州, Halbkanton)에서 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상원 총 의석수는 46석이다.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상이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 하원(Nationalrat, National Council)의 의석은 총 200석이며, 각 주별 의석수는 주민수로 결정된다. 취리히 주는 가장 많은 34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반주 및 글라루스(Glarus) 같은 작은 주들은 1명의 하원의원만을 선출한다. 하원의원은 비례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④ 의회의 권한

- 스위스의 의회는 입법권, 재정권, 임명권, 감독권, 제안권을 가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입법권 : 헌법, 법률, 연방결의, 국가조약 입법
 - － 재정권 : 예산 승인 및 집행 조정
 - － 임명권 : 연방각료, 내각 사무처장, 연방법관, 최고군법회의 법관, 전시최고사령관 임명
 - － 감독권 : 행정부 및 법원 총감독, 행정 예산 회계 감독
 - － 제안권 : 헌법·법률·결의의 개정 발의, 행정부에 대한 특정 조치 요구 및 질의

⑤ 의사결정

- 연방법, 결의 및 각의 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은 양원에 각각 나누어 회부된다. 양원은 각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 후, 양원 합동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양원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각각 13명의 대표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양원 합동회의에서 의결한다.

⑥ 상임위원회

- 상·하원 내에 각 1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2명의 의장 및 위원(하원은 23명, 상원은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매분기 평균 3~4일간 활동하면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며 심사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교섭단체

- 교섭단체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룬 연대그룹으로, 한 명 또는 다수의 당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최소 5명의 의원이 가입한다. 현재 자민당, 사민당, 기민당, 국민당, 녹색당 5개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양원에서 활동 중이다. 교섭단체는 의회 위원회에 소속의원을 보내 소관업무에 대해 미리 논의하며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한다.

4. 스위스 자연 관광지 탐방

① 유럽의 지붕 알프스 “융프라우”



<스위스 융프라우>

○ 해발고도 4,158m의 융프라우는 아이거, 뮌히산과 함께 알프스 3대 명산으로 꼽히며 '젊은 여인'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산세를 하고 있다. 융프라우는 해발 3454m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요흐까지 연결되는 등산열차는 관광객의 발길을 융프라우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산악열차는 인터라켄 동역에서 출발한다. 융프라우요흐로 오르는 길은 두 곳으로 나뉘는데 라우터브루넌을 경유하는 노선과 그린덴발트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갈라진 후 클라이네 샤이데크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클라이네 샤이데크에서 융프라우까지는 불과 10km에 불과하지만 경사가 심한 석회석 암벽을 뚫고 철길을 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정상을 오르면서 빙하의 흔적을 보도록 기차가 중간에 정차를하며 정상에 도착하면 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다. 물론 날씨가 좋아가 가능하지만 파란 하늘에 하얀 눈이 절경이다.
- 알프스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는 레스토랑과 얼음궁전, 우체국, 매점, 응급구호소 등이 있다. 정상のレストラン에서 우리나라의 컵라면을 파는데 여행객에게 인기가 좋다.

5. 연수 소감 및 정책제안

- 유럽 4개국의 간판은 오래된 고건물(건축양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연경관이나 도시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클래식한 간판들이 주를 이룬 것 같다.

⇒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네온간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거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의 멋스러운 거리풍경과 어울리게 과시용 보다는 실용성, 편의성에 무게를 두고 이용하는 승용차가 대부분 경차나 소형차란 점이다.

특히, 절반 이상의 승용차는 승용과 운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왜건형들이다. 이처럼 이 나라 사람들이 소형차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것은 브랜드나 차종, 차량의 크기를 신분 과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처럼 승용차가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 단지 교통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다.

선진국의 절약정신을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스위스 융프라우는 인터라켄의 명물이자 인터라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다. 높이가

3,454m에 달하는 융프라우의 정상인 융프라우요흐는 눈 덮인 산 봉우리와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융프라우요흐에 오르는 교통수단은 톱니바퀴 산악기차로 등정하는데 전망대에 오르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여 높은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자연경관자원과 역사문화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선하여 거점관광지 시설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금번 유럽 연수를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이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이며 유럽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 층 더 성숙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든다.

▽ 4분임 활동사진



△ 4분임 단체사진



△ 유럽 연합의회 간담회 질문광경

공통과제 - 독일 친환경 주거단지 벤치마킹

1. 보봉(Vauban), 친환경 주거단지 개요



- 위치 :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 면적 : 38ha
- 거주자수 : 약 5,000명
- 주택유형 : 학생기숙사, 아파트, 단독주택

-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보봉(Vauban)은 1991년 프랑스 군이 철수하면서 프라이부르크시가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독일 정부로부터 2천만유로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개발이 시작된 일종의 교외신도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프라이부르크는 세계 환경수도라고 불릴만큼 친환경 도시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시로, 보봉의 재개발 역시 친환경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2. 보봉(Vauban) 단지 방문

- 방문일시 : 2015. 6. 18(목) 13:00 ~ 16:00
- 장 소 :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보봉단지
- 주요내용 : 생태단지 청취 및 질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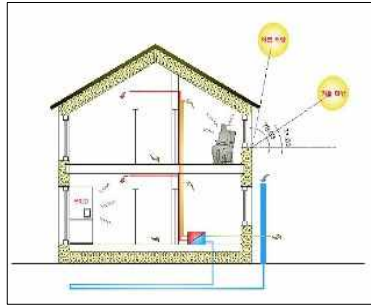
○ 보봉 주거단지 조성 내용 요약

-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생태도시.
- 1992는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의회가 주거단지로 개발 시작.
- 이 주거단지는 대형 건설회사가 건축을 하여 분양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조합 형태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주택을 지어 현재의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됨.
- 보봉생태주거단지 조성 시 프라이부르크 도심과 연결되는 트램을 먼저 건설하여 자동차 사용을 억제함
- 보봉생태주거단지 외곽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단지 내부로의 자동차 통행을 억제함
 - * 짐을 내리기 위해 30분 정도만 자동차가 단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음
- 보봉생태주거단지 자동차 수는 800대 정도로 독일 평균의 절반 수준임.
- 자동차 주차공간은 주민들의 친교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 단지 내 건축물은 모두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건축물로 만들었으며 (3중창, 환기장치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은 소비되는 에너지 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도 있음.
- 보봉생태주거단지는 저에너지 소비에만 중점을 두어 도시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로 조성.
- 단지 내에 학교, 유치원, 스포츠클럽, 상가 등은 트램길을 따라 1층에 배치하여 단지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단지 조성.
- 지역개발을 하면서도 큰 나무들은 그대로 두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
-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 막사 등도 철거하지 않고 개조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단지 내에서 태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이며, 나머지는 흑림 지역의 나뭇조각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과 온수를 공급받고 있음.
- 보봉생태주거단지는 일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깨끗한 환경과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90%이상이 계속하여 이곳에서 살기를 원함.



△ 지붕에 태양열 패널 설치



△ 패시브 하우스
- 고단열, 고기밀 개념도



△ 기본적인 교통수단 자전거

3. 주요 질의답변 내용

문 패시브 하우스 건축비용과 일반 주택 건축비용을 비교하면 ?

답) 건축자재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40% 정도 더 소요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생각하면 효율적임

문 난방을 위해 외부와 차단을 위해 3중창 등을 하는데 그랬을 때 환기 등 문제는 ?

답) 패시브 하우스 시스템에는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고가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

문 우수나 하수를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침수하도록 한다는데 모기 등으로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는지 ?

답) 하수의 경우는 정화 시스템을 거쳐서 침수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모기가 많지 않음.

문 현재 보봉 단지의 경우 교통이나 학교 등 어려움이 있는거 같은데
향후 생태도시 건설 방안은 ?

답)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민과 시정부, 의회가 협력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출발은 보봉 생태 주거단지였지만 현재 도시속에서도 어울릴수
있는 도시형 생태주거 건물이 설계되어 중소도시에 건립되고 있음.

4. 시사점

① 시민, 시정부, 시의회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도시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정
책이 입안된 것은 1974년 인근 wyhl(빌)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
획을 발표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포도밭 농장주들을 중심
으로 한 시민협의체가 대안에너지 운동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
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여 배척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여 시의 친환경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킨 시정부
및 시의회의 결단도 한 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프라이부르크의 높은 일조량, 양질의 바람, 바이오가스
생산에 유리한 흑림지대 목축업의 발달, 소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 등 천혜의 자연환경도 프라이부르크가 친환경 도시로 성공
하는데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 연수단은 프라이
부르크 방문을 통해 친환경 정책의 성공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와 시정부, 시의회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

- 친환경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구 온난화 및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며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가스, 수소전지)를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에너지 건축만을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저에너지 소비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용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집열판, 태양열 집열판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대체에너지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 이는 모든 에너지정책이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 후손들이 생활해야할 삶의 터전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을 우선하는 정책, 즉 “기본에 가장 충실한 정책”이자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구 해야할 에너지정책 방향이 아닐까 한다.

③ 지역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친환경 정책

-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정책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이다. 이렇듯 그 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정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대한 에너지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보봉생태주거단지 조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규모 촌락이나,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그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주거형태 등에 맞는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불편함을 감내하는 시민문화정책

-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정책 및 교통정책은 편리성,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은 편리한 원전 건설보다는 조금은 느리지만 항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노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편리한 자동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자를 위한 도로정책의 수립 등은 고에너지 소비를 수반하는 “편리한 삶의 방식”에서 저에너지 소비를 통한 “조금은 불편하지만 환경을 배려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친환경에너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공통과제 - 도시 경관 보고서

1. 연수 개요

- 기 간 : 2015. 6. 14.(일) ~ 6. 23.(화) / 10일간
- 대 상 국 : 유럽 4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 연수인원 : 23명(도의회 3, 도본청 1, 시군의회 19)
- 연수내용
 - 유럽연합의회 운영현황 및 연방의회 현황
 - 생태 마을 및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탐방 등
 - 도시 경관·역사·문화 견학 등

2. 경관 보고서

①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 도심의 대중버스는 매연이 없는 전차(전기버스)운행
- 자동차·자전거·인도의 확실한 구분으로 교통사고 예방
- 도심 중앙에는 자동차가 진입하지 않게 하는 한편 도심 주변 도로에 상설 주차장을 마련하여 불편을 해소함



△ 도심속 전차



△ 자동차·자전거·인도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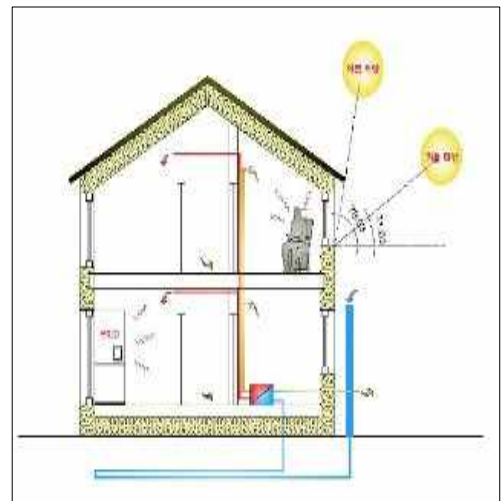
△ 도심주변 도로 위 주차장

②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에너지 마을 “보봉단지”

- 마을 전체 주택이 고단열·외부 차양 장치 등 기술(패시브 시스템) 적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일반 주택의 70~80%, 한 여름에도 냉방 시설 없이도 26℃를 유지, 마을 내 자동차 진입금지 등 정책 시행으로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성공한 사례
 - －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대상 마을임



△ 보봉마을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 패시브 하우스
－ 고단열, 공기밀 개념도

-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에서도 패시브 하우스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택단지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 －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 경북지역에 현재 30채 보급되었으며, 금년 8월에 가창에 61가구가 분양될 예정임



Ⅲ. 연수 소감문



간담회 인사말씀

◎ 도의회 사무처 입법지원관 김양수(단장)



유럽 의회연합 등 방문지 사진

- 반갑습니다. 입법지원관 김양수입니다.
- 여러분, 시·군 의회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 집행부와 의회의 중간에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자치가 정립된 선진국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펴보고 비교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 다녀오셔서, 우리 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적지 않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한 소중한 기회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 아무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해외연수인 만큼 연수기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회장 · 총무단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연수 관련 설명 잘 들으시고 사전 준비 잘 하셔서 알찬 연수가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별 연수 소감문

◎ 해남군 의회사무과장 채성기(연수단 회장)



-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실태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유럽 연수를 2015. 6. 14. ~ 6. 23.(10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을 다녀왔다.
-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생소하기 보다는 보고 느끼고 우리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이 급선무였으며,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풍력발전소 들판에 집중설치 운영, 스위스 알프스 산맥 융프라우의 관광정책, 프랑스의 유럽연합의회 방문,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단지인 보봉단지와 각국의 지방의회를 방문 견학하면서 많은 견문을 넓혔다.
- 첫째,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풍력발전소는 들녘에 집중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민원 때문에도 어려웠을 것임에도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 둘째, 스위스의 알프스 융프라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상상도 못할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연의 훼손을 줄여가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했다는데 스위스 국민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셋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연합의회 방문은 28개국 유럽연합의 의안 처리 선정부터 채택되기까지 자세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동안 처리했던 농업관련 가이드라인 처리, 우유가격 조정, 유전자 변형 돼지고기 판매 금지 등 안건 처리와 함께 진행중인 스마트폰 충전기기 동일 유형제작 등 다양한 유럽 의회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 끝으로,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단지인 프라이브르크의 보봉 단지는 24만명이 거주하는 중소도시를 에너지 재활용과 자연 친화형인 주택을 결합,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는 벤치마킹을 통하여 독일과 같이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전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 김황희



-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유럽 국가들의 지방의회 벤치마킹을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 의회 관계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인솔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다녀왔다.
- 당초 24명이 가기로 했으나 출발 전에 보성군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해외 연수를 못 가도록 하는 군 방침 때문에 취소하고 23명만 계획대로 출발하였다.
- 인천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11시간을 비행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에 도착하였다. 11시간의 긴 비행도 처음이고 유럽 국가를 방문한 것도 처음이어서 연수 목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설레기도 낯선 환경과 다른 인종들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잘츠부르크, 스위스 베른 등 내가 방문했던 도시들은 모두 깨끗하고 나무와 꽃이 도심 곳곳에 있는 전원도시들이었다. 가정집이든 관공서든 상가든 모든 건물 창가에는 꽃이 활짝 핀 화분들이 있었다.
- 자동차는 전혀 매연을 뿜지 않았다.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좀 비싸지만 좋은 연료를 쓴다고 설명해 주었다. 시내의 대중교통은 전철이었다. 시내 주도로는 전철과 버스가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다. 또 인상적인 것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 느낀 것은 알프스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고 그 자연을 지키려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 다음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친환경 마을인 보봉 단지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과거 프랑스군의 주둔지였다가 1992년 군 철수 후 지속성 도시개발이 수립되었으며 3단계 개발과정을 거쳐 2006년 보봉 단지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 보봉 단지의 태양광 에너지 주택은 일명 ‘패시브 하우스’로 불리는데 에너지 사용에 소극적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단열재의 사용으로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차단하거나 쓰고 남은 폐열을 이용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등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된 집을 말한다.
- 패시브 하우스와 울창한 조경지구, 모래와 통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단지는 CO2를 기존 도시보다 60% 감소 발생, 전기의 65%를 친환경 생산(신재생에너지), 모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
- 이를 위해 교통시설은 보행자 > 자전거 > 경전차 > 승용차 순으로 편리성을 주었고 ‘트램’이라는 전차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토록 하였으며(15분이면 시내 도착), 각 가정마다 집수수로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 비를 재활용한 정원 물주기, 세차하기, 변기물로 사용하기 등 물 자원 절약 및 단지 주변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가지치기 한 나무들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 단지를 안내해준 분은 시 도시계획 자문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였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2시간 동안 단지 곳곳을 안내해 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다. 2008년 유네스코로 지정된 보봉 단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개인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직접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감동하였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데 노력하고 이러한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이 하나라도 아껴 쓰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겠다.
- 다음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의회를 방문하였다. 건물 규모도 컸고 본회의장 등 내부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검문대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를 안내해 줄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900석이 갖춰진 본회의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임위원실에서 직접 의석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 유럽 의회(－議會, European Parliament, EP)는 유럽 연합(EU)의 입법 기관으로 28개 유럽 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는데 주요한 입법기능은 각료 이사회가 주로 행사하지만, 입법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유럽 집행위원회를 감독하며 유럽 연합의 예산 감독권을 가진다. 4억 5천만 유럽 연합 시민을 대표하며 유럽 의회 의원은 751명이다. 선거는 5년마다 성인 보통선거로 실시되는데 2014년 6월에 실시됐으며 최대 규모의 동시 국제선거였다.
- 또 기억에 남는 곳은 라인강이었다.

- 라인 강은 약 160km정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따라 흐른다. 다시 독일 영토를 흐르게 되는데 이 구간은 지난 2세기 동안의 하천 직강화를 통해 곡류로 흐르던 강이 이제 직선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 구간은 라인 지구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지구대의 폭은 비교적 넓어 32km 정도이며 강을 따라 범람 원도 형성되어 있다. 지구대의 양쪽은 서쪽의 보주 산맥과 동쪽의 슈바르츠발트 산맥이다. 마인츠를 지나면 라인 강은 다시 좁고 구불구불한 145km 길이의 협곡을 따라 흐른다. 협곡의 서쪽 편은 훈스뤼크 구릉지와 아이펠 구릉지가 있고, 동쪽 편으로는 타우누스 구릉지와 베스트발트 구릉지가 있다. 이 구불구불한 협곡을 따라서 수 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고성들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본에 이르기 전에 강폭은 다시 넓어지고 평야를 만나면서, 쾰른, 뒤셀도르프, 뒤스부르크 등의 공업 도시를 만난다.
- 우린 유람선을 타고 1시간 정도 북에서 남으로 라인강 여행을 했다. 주변으로 보이는 풍경은 자연과 마을이 하나되어 아름다웠고 중간 중간 성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라인강을 따라 쉽 없이 다니는 여객선들과 화물선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자원과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라인강이 제2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을 다시 부흥시키고 통일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 이번 연수에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도 본받을 점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창가에 화분을 키우면서 환경을 깨끗이 지키고 자 모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 도 및 시군 의회관계자 23명이 유럽 연합의회를 비롯해 문화 및 환경, 건축물 등 유럽 국가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뜻있는 연수였다.

◎ 곡성군의회 의회사무과장 한승일



- 선진 외국 지방의회 제도 및 의정활동 벤치마킹을 통한 도정발전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유럽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연수국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4개 국가였으며 도·시·군 의회 직원 23명이 참여 하였다.
- 먼저 첫 방문지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183석의 하원인 국민의회와 62석의 상원인 연방의회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4만~5만불 수준이고, 복지수준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한 ‘삶의 질’부문에서는 9년 동안 세계 1위, 실업률 역시 유럽에서 제일 낮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복지, 삶의 질,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스트리아의 모습은 정말 부러울 따름이었다.
- 두 번째 방문지인 스위스는 선거구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26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 등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는 다민족이 뒤섞여 살면서 주변 국가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언어가 따로 없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네 가지나 되며, 여기에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영어도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스위스 최초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유럽의 지붕인 융프라우를 등정 스팅크스 전망대에서 알레취 빙하와 알프스산맥의 천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스위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시내 중심가에는 3,000km 공동구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냉난방, 정보처리케이블)이 잘 되어 도로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 교통 및 보행에도 편리하여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이 전혀 없어서 우리나라와 비교되어 심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도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케이블선이 지하매설물로 거미줄 같이 복잡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전주나 맨홀 등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뒤텔린 지상의 공급시설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공동구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 그 다음으로 방문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회 내부를 방문하여 느꼈던 점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 앉아서 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해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하는 의원들의 책상과 의자가 너무 수수했다는 점이다. 그 후에 들렀던 독일 의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을 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 보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이어서 방문한 독일의 경우 역시 의회가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원의 권한이 상원보다 훨씬 광범위 하다고 한다. 우리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일컬어지는 프라이부르크 보봉생태주거단지를 공식 방문하였다.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에너지 건축만을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자동차 이용의 제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의 장려정책, 태양광집열판의 보급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정책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정책 이전에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각성이 친환경정책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는 원자력발전소 설치계획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정책의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 친환경 정책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기존의 편리성 위주의 에너지 소비의식에서 벗어나 저에너지 소비를 지향하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 소비 행태로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관할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친환경의식 변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용호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는가? 글을 통한 배움도 큰 즐거움이지만 현장에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배움은 그 설렘과 즐거움이 배가 된다. 의회민주주의의 꽃인 유럽의회 방문의 이번 연수는 의회에서 근무한지 2년차가 되어가는 나에게 지방의회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의 기관 대립형 의회인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의회에 대한 이해의 여정은 우리 지방의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기관 통합형으로 의장이 시장이 되고 지방의회가 바로 집행기구가 되는 프랑스 지방의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 유럽의 생태마을과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유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각은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지자체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전남이 그리고 구례가 먼 미래를 본다면 개발과 발전보다는 보존과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 보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나의 시선을 끌었던 곳은 주민의 참여가 만들어낸 에너지 자급마을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였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전 세계적인 관심은 온실가스 줄이기 등 환경 보존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친환경

경 도시의 롤 모델로 꼽히는 독일 보봉마을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 녹색을 창조하는 새로운 생태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주장과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보봉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차 없는 마을’, ‘자원순환 마을’, ‘태양에너지 주택’, ‘에너지 효율 주거단지’로 친환경마을을 실현하고 있었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개인주차장이 없다는 것 이였다. 정원과 공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주차장이 주차장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마을에 거주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이 마을 주민들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0명당 2.5대꼴, 자전거는 1명당 1대꼴이었다.
- 환경파괴를 담보로 하는 편리함 대신 조금은 불편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안전을 선택한 보봉마을 주민들을 보며, 인간과 자연의 공생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가장 최고점을 줄 수 있었던 점은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당장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의 자세와 안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공무연수를 통해 또 다른 세계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와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 장성군 의회사무과장 김영수



- 이번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유럽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실태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의정 지원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되었다.
- 이번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유럽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실태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의정 지원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획되었다.
- 그러나 뜻하지 않게 메르스 관련 사건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되면서 연수 2-3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도 연수생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준비하였을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정된 연수라 다른 어느 연수보다 뜻깊게 생각한다.
- 연수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 떠나는 날 새벽에 들뜬 마음으로 여장을 챙겨 5시 40분 광주시청 앞에서 버스에 올라 다소 생소한 연수생 24명과 교감을 갖고 인천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2시 50분발 대한항공을 타고 오스트리아를 향해 출발하였다. 약 11시간 30분간의 비행시간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에 도착하였다. 비록 힘든 비행시간이었지만 첫날이라 힘들다기 보다 이후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즐거운 마음이 더했다.

- 이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의 선진 의정활동 상황을 위한 관할관청 방문과 세계 문화유산 관리실태 등을 견학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견문을 넓혔다.
- 첫 번째 방문국인 오스트리아는 한반도의 약 1.6배 크기로 인구는 약 822만 명이며, 수도는 빈(Vienna)으로 독일어를 쓰는 나라이며, 1인당 45,600불 수준으로 날씨는 우리와 비슷하였다. 우리가 도착한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로서 베토벤의 고향이기도 하며 음악과 문화예술의 도시로 잘 알려진 곳이다. 여기서 2박 3일 동안 수도인 비엔나 시의회를 방문하고 도시경관을 벤치마킹한 후 쾰름으로 이동하여 모차르트 생가 및 대학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영화 “싸운드 오브 뮤직”촬영지로 유명한 할슈타트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말그대로 동화같은 마을이었다. 차창 넘어 펼쳐진 온 들판이 마치 달력에서 보는 사진이나 그림같은 나라로 첫 번째 방문국으로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속으로 탄성을 지르기에 충분했다.
- 두 번째 방문국인 스위스는 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는 약 800만 명이며, 수도는 베른(Bern)으로 주로 독일어를 쓰며, 1인당 84,000불로 세계 2위 수준이며 날씨는 우리보다 1달 정도 늦는 듯 싶다.
- 스위스 수도인 베른시 연방정부를 방문한 후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봉블랑은 아니지만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융프라우(3,160m)에 오르기 위해 트레인을 타고 가는 순간부터 주변 경관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스위스는 예로부터 역대 왕이 없는 나라로유적이 없는 반면 그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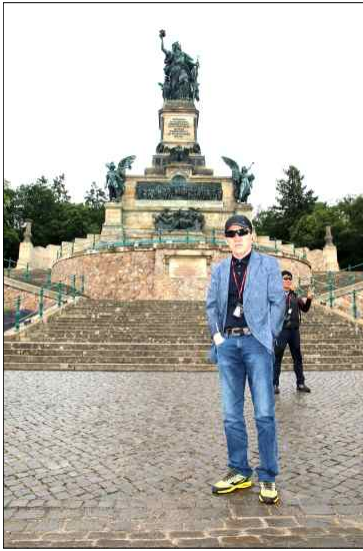
- 세 번째 방문국인 프랑스는 면적은 한반도의 2.5배 크기로 인구는 약 6,400만 명이며, 수도는 파리(Paris)로 언어는 불어를 쓴다. 1인당 4만불 정도로 이며, 날씨는 우리나라 보다 조금 낮은 듯 싶다.
- 독일을 거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유럽의회를 방문하였다.
- 여기서 담당직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유럽의회는 28개 회원국 4억 5천만 명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1979년부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현 의원은 지난해 구성되었다. 현재 의원 수는 751명으로 독일이 96명, 프랑스가 73명, 적게는 에스토니아가 6명이며, 의회 의장은 마틴 슈츠로 독일 출신이다. 주요 기능은 유럽내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사항이나 협조, 협상의 대상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외교 및 안보정책, 농업정책의 확정 등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

※ EU조직 : 유럽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회원국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EU집행위원회” 등이 핵심 기구임.

- 네 번째 방문국인 독일은 면적은 한반도의 1.6배 크기로 인구는 약 8천 2백만 명이며, 수도는 베를린(Berlin)으로 독일어를 쓰는 나라로 1인당 4만 2천불 정도 이며, 날씨는 우리나라 보다 조금 낮은 듯 하다.
- 유럽의회 가기 하루 전날 독일 프라이부르크 내에 위치한 “보봉단지”를 방문하여 환경 전문가의 소개와 안내를 받으며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곳은 2천여채의 주택에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늘날 친환경 도시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다.

- 보봉마을이 생태마을로 거듭나게 된 것은 새로운 생태마을을 만들자는 시민의 주장과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차 없는 마을, 자원순환 마을, 태양에너지 주택과 에너지 효율 주거단지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는 곳으로 태양에너지 도시, 녹색과 주민참여로 요약할 수 있는 마을이다.
- 이러한 사례들이 직접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친환경 주택과 태양에너지 활용 등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 노벨상을 32명이나 배출한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성당 방문, 괴테생가와 자동차 박물관, 통일 기념비, 로렐라이 언덕, 라인강변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 유럽 4개국을 시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리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어려워 힘들기도 했지만 유럽풍으로 초원위에 지어진 그림 같은 집들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순간 피로가 녹아내렸다. 또한 잘 보존된 문화유적, 선진화된 문화의식 등 모든 연수단원들의 의식을 한단계 업시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도 및 시군 의회관련 공무원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모처럼 만의 해외 연수로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도의회 의장님과 사무처장님, 입법지원관님 그리고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순천시의회 의사담당 박홍파



- 프랑스에 위치한 유럽의회는 1962년 설립된 이후 각 회원국에서 국회의원을 파견하다가, 1979년부터 직선제 체제로 바뀌면서 최초로 선거를 실시함.
- 유럽연합 회원국 25개 국가에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보통선거를 통해 5년마다 의원을 선출하는데, 주로 EU 관련 문제에 대한 공개토의, EU 예산 심의, 각종 집행기관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함.
- 의회의 규모나 결속력, 설립 취지 등을 볼 때 좋은 시작이었다고 보여지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갈등 상황 등을 볼 때 향후 운영에 의문점이 듬.
- 방문 시기 중 유럽의 날씨는 대체로 더운 편이나 해가 거의 없어 하루 종일 찌뿌둥한 날이 많았음.
-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탈리아 어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하는 운동을 의미하며, 근본적 이념은 인문주의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바로크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진주', '찌그러진 보석'이란 뜻으로서 르네상스의 명쾌한 균형미로부터 떠나 번잡하고 까다로운 세부 기구의 과잉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방문지의 도시들에 이러한 중세시대의 건축 양식 등이 공존하고 있지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음.

- 유럽의 도심 속 건물과 주택들은 대체적으로 오래된 예전 모습 즉,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한국은 경쟁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첨단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양 따르고 있는데 유럽의 숙박업소는 대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고전적인 미와 함께 전통을 계승하는 느낌을 받았음.

이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정책 추진에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옛것을 살려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어나가야 할 것임.

-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질서 잡힌 모습이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였음. 무엇보다 모든 것이 사람 우선으로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도 사람을 먼저 배려하였으며, 특히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는 모습이 돋보였음.

- 방문지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친환경 도시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보봉마을임.

보봉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차 없는 마을, 자원순환 마을, 태양에너지 주택과 에너지 효율 주거단지를 이루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는데, 환경을 파괴하는 편리함 대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불편함을 주민 스스로 선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보봉 마을의 사례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꾸는 우리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져 참고할만함.

◎ 여수시의회사무국 이광술



- 금번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설렘도 많았고 처음 가보는 해외 연수라 여러나라의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섭렵하고 온다는데 대하여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 하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 메르스로 연수 기간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새로운 문화와 그 지역의 시민의식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온 내실 있는 공무연수였다.
- 제일 인상 깊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 실천으로 녹색도시를 만든 시민 실천의 힘에 대해 몇자 적어볼가 한다.
- 독일 시민들은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열 발전 기술을 연구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환경을 먼저 생각한 시민들은 결국 흑림을 되살렸고, 프라이부르크를 독일의 환경수도로 만들었다.
- 시민들의 노력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빠른 도시를 만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의 거리엔 자동차 대신 자전거의 행렬이 이어진다. 21만의 인구에 25만대의 자전거.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차를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빠르고 편리 할 수 있는 교통체계 때문이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도시 중앙에 있어 빠르게 어디든지 갈수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거리라도 외각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자동차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프라이부르크의 거리에서는 온통 걸어다니는 사람과 자전거뿐이다.

- 프라이부르크의 가정집에서는 쓰레기통이 3,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시켜 거름으로 사용한다. 주부들은 장터에서 포장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을 사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포장용 비닐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활용 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매립되어 메탄가스를 생산한다. 이 메탄가스는 다시 발전소로 보내져 전기를 생산한다. 또한 태양열 주택을 건축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1/4가량 줄인다.
- 이들이 환경보호에 힘을 쓰는 일은 지속적이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친환경위주의 교육을 한다. 아이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미래의 시민이 될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환경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준다. 환경보호의 의식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다.
- 이들의 체계적인 실천의식을 우리시민들도 아니 모든 국민이 실천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연계되고 합쳐져 온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는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 먼저 나 자신부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자동차 이용 자재하기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본다.

◎ 광양시의회담당 이강재



- 도의회 및 시·군의회 관계공무원 24명 구성된 연수단은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지방의회 제도 및 의원 의정 활동 지원 방법 및 유럽 생태 마을 및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탐방 등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 저에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 기반 및 생태마을 보봉단지에 대하여 남기고 싶다.
- 우선 보봉단지는 프라이부르크 도심에서 약 3km 떨어진 11만 여 평의 생태마을이다. 이곳은 1차 세계대전 당시 1932년부터 독일군의 병영이었고, 1992년 연합군이 철수하기까지 프랑스군이 주둔했던 곳이었다. 1995년 “연합군 철군 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기로 생태마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해 프라이부르크시가 4만 마르크를 지원해 생태 마을 건설을 위한 시민 자치모임인 “포럼 보봉”이 출범하게 되었다.
- 회원들은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량과 물소비를 최소화하여 생태순환의 고리를 끊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생태건축> - 깨끗한 에너지

- 1차구역 428세대 중 40여 세대의 ‘파시브 주택’은 필요한 에너지 전체를 태양열로 충당하고 최신 건축기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독일 일반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수준인 연간 m^2 당 16kw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들 주택을 보면 전면을 남향으로 해 햇빛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최대한 넓혔으며, 건물 북쪽은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무로 외벽 처리하여 외부와 통하는 창문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또한 특수유리를 사용하여 열을 흡수하지만 방출이 되지 않게 하고, 건물 내부는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실내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에너지 생산 건물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한다. 생산한 에너지를 절약을 위해 자연이 주는 열과 바람을 이용하며, 방향을 고려하여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 보봉단지는 차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리한 교통체계를 주택 단지 내에 구상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자동차를 인한 대기 오염 배출을 줄이자는 원칙에 부합되는 성과라 하겠다. 보봉단지 회원들은 처음 독일 최초로 차 없는 주거단지를 꿈꾸었다.
- 하지만 독일 건축법상 주택에 주차 공간 확보가 의무화 되어있고 외부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어 ‘차 없는 주거단지’에서 차를 최소화하는 주거단지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 그래서 이들은 주차장을 주택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고 집 에까지 걸어가도록 하여 자동차와 주민의 생활공간을 적절히 분리 시켰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보봉단지에서는 420여 세대 1천여 주민이 사는 단지에 주차 대 수를 350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와 주민자치모임인 ‘보봉포럼’은 건축 법을 위반하지 않은 위내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주차장 예비공간을 확보해 좁으로써 건축법상 의무화된 주차장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이 주거단지 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어 자동차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도록 해 놓은 정책이다.

- 또한 Car Sharing 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 굳이 내 소유의 차가 필요 없다. 일정금액만 내면 내 마음대로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 평일에 운행하지 않고 주말에 잠깐 이용하기 위해 차를 사는 우리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차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보험을 생각하고 기름값을 생각하고 고장나면 고쳐야하고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결론>

- 생태마을 자체가 나에게서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마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충격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하에 생태마을이 존재하는 것이 존경스럽게 여겨진다.
-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바쁘다. 자동차가 집 앞까지 가서 차에서 내리면 집 현관이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보봉단지 회원들은 그 편리함을 과감히 버려 마을로 차가 들어오지 않게 노력한다.
- 그들이 사는 마을은 환경을 고려했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들이 차를 타기 위해 마을 밖에 있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차를 가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택했다.
- 나는 편리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불편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실천하는 것 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나에게 주어진 자연의 소중함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한다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 고흥군의회담당 김순남



- 독일 프라이브르크 「친환경 생태주거 보봉단지」에 도착하니, 어느 유럽지역 날씨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추적 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미리 준비한 우산을 쓰고, 답사에 나섰다.
- 보봉단지는 도심에서 약 3Km 가량 떨어진 친환경 생태마을로 태양열을 주원료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량과 물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생태 순환을 끊는 콘크리트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생태 주거단지라고 한다.
-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지대가 많다는 것 이외에는 유럽의 어느 평범한 주거단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친환경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할 가치가 있기에 머나먼 이곳까지 와서 방문코스에 포함했겠지 하고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대로 따라 나서기로 했다.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표지판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주민 대다수가 자가용 대신 트랩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 또한, 트랩 정류장 앞 자전거 보관대에는 자전거가 가득하고 트랩 철로 사이에 녹지지대를 만들어 완충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골목길에는 차가 알아서 조심스럽게 운행하라는 표지판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다.
- 도로변 배수로는 개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흘러내린 토사와 잡풀을 제거하지 않고 낙엽 등을 자연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 건물 대부분이 층계를 외부로 빼서 설치하여 주거면적 확보는 물론 덩굴식물 등을 심어 차폐효과 및 생태환경조성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 또한, 건물 전면이나 측면에는 화분이나 덩굴식물로 단장하고 건물 옥상은 꽃이나 나무를 심어 옥상녹화를 하였으며,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연료를 생산하고 있었다.
-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곳이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병영이었고, 프랑스 군대 주둔지였다고 하니,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주민들의 힘이 더더욱 경이로울 뿐이다.
- 짧은 시간이나마 보봉단지를 답사한 느낌은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차량보다는 보행자를,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잠시 행복한 상념에 잠겨 보았다.
-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커다란 숙제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 나는 지금, 「작은 것 하나 편리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불편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실천하는 것」 이야 말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친환경 생태마을 건설이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흉물로 변해버린,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심하고 그 답을 보봉단지에서 찾았으면 한다.

◎ 강진군의회 의사담당 조진표



- 먼저 금번 연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도의회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에 대하여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8박 10일간의 연수일정 동안 최대한 많이 보고 현지의 생활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싶었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앞의 광장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열려있어 자유스러움과 활기가 넘쳐흘렀다.
-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된 3,454m의 눈 덮인 산 봉우리와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융프라우요흐는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으로 가장 높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에 할 말을 잃었다.
- 주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친환경마을로 도심에서 3km정도 떨어져 11만여 평의 생태마을 독일 푸리아부르크의 보봉단지는 사람이 가장 살기 적합 하도록 인위적으로 꾸며진 사례라 할 수 있지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화해라는 역사적 상징성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접경지역인 스트라스부르에 유럽의회 본부는 유럽의 입법 권한과 감독권 그리고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교, 경제, 금융, 농업, 개발, 예산 등의 분야에서 22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이곳은 일반인들이 방문하기 매우 어려운 곳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유럽의회 본부의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우리도 이들과처럼
상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 그 밖에 쾰른 시의회와 스위스 연방의회 등의 관공서와 비엔나, 바덴
바덴 등의 시내를 견학하면서 역사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주택의 유리창마다 매달려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언
어의 장벽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도 손짓과 눈짓 그리고
서투른 대화를 통하여 동서양이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피곤함도 많았지만 하나라도 더 보고 느끼려고 새벽
에 일어나 카메라를 메고 숙소 근처를 돌았으며 저녁에도 밤늦게 까지 거리를
배회하였는데 귀국하여 보니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 바트헤레날브의 슈바르트발트 호텔 주변에 그림처럼 어우러진 작
은 마을에서는 소박한 맥주축제가 열리고 있었으며 늦은 밤 이방
인인 우리에게도 환대와 따뜻함을 느끼게 하였다.
-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이지만 깨끗함과 밀집하여 있지 않은 도시,
그리고 느긋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다음에도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견학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짧지 않은 기간 이였지만 모두 함께 웃고 즐기는 자리는 갖지 않
았지만 광역과 기초의회 그리고 기초의회간의 정보를 교류하면서
함께하였던 시간은 공직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 메리스 발병 등으로 공무국외 견학이 매우 어려운 현실 이였지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보고 느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함으로 더 노력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 진도군의회 의사담당 김기형



-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의회운영을 담당해왔던 직원분들과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의정활동의 지원능력을 높이는 뜻 깊은 공무국외여행이었다
- 가장 잊을 수 없는 지역은 2시간 톱니바퀴열차를 타고 오르는 알프스산의 융프라우 설원이었다, 모두들 오르는 동안 언젠가 달력에서 보았던 그림에 연신 셔터를 누르며 황홀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 산을 오르기전 인터라켄 역에서 구름 낀 날씨였는데 산 정상에 도착해서는 맑게 갠 알프스 정상을 만끽했다. 눈빛에 눈부신 보석같은 온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다. 알프스 고원에서 맑고 시원한 공기가 그간의 피곤함을 한꺼번에 쓸어 내리는 상쾌함을 즐겼다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는 대륙이 마치 한 개의 국가처럼 자유왕래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방과 소통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베어, 각국의 다른 문화 속에서 인류공영을 위해 융화되고 화합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문화의 수준을 대변하는 듯 느껴졌다.
- 더구나 28개국이 모여 공통의 문제를 대화 속에 풀어내는 것이 남북 분단과 동서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부러웠다. 연합의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사고의 다

름을 인정하고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다 함께 존중해주는 문화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선진국들 다운 멋진 모습이었다.

- 또한,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나 수십년간의 도시계획에 의해 먼미래를 생각하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각종 건축물의 기둥과 공간배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건축하였고, 일반 기업이나 공공건물 신축허가시에는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거주민의 생활속에서 건물이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았던 것 같다.
- 공무국외 여행 첫날 모두 낯설은 얼굴에서 약간은 서먹 서먹 했지만 마지막 날 귀국길에는 마치 십년지기가 되는 양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서로 의회간 정보교류 등 소통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약속하는 자리로 보람 있는 추억을 만든 자리였다.
- 그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신안군의회담당 이순석



- 6월14일 비엔나 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 공항을 출발했다. 이번 연수는 선진국이며 범국가적인 차원의 의회 모습을 띄고 있는 EU의회를 중점 으로, 다른 유럽 도시들의 의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중요한 연수라는 임무를 가지고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 비엔나에 도착해서 비엔나 시청을 처음으로 둘러보았다. 빈 시청 앞에서는 공연이 진행 중이었다. 한 도시의 행정이라는 임무를 행 하는 무거운 이미지를 가진 곳 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시민들과 가까운 시청의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마치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시청을 방문했을 당시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 시청이라는 공간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 식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 유럽의 잘츠부르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이루어져있었다. 어느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잘 관리 되어있는 도시의 구 시가 지는 좋은 관광자원이었다. 특히 ‘모차르트’ 라는 유명 음악인을 기리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유럽의 여러 음악인들을 모으고 음악인 들의 성지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 고 있었다. 우리 군이 많은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 반을 확실히 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축제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 오스트리아를 넘어 스위스로 넘어갔다.
- 스위스는 나라 전체가 마치 관광지 같았다.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년설로 뒤덮여있어서 순백의 산이 가진 수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군이 가진 바다의 수평적 이미지를 가진 것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안군이 가진 소금의 순백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우리군의 특색을 충분히 표현하고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가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 독일의 에너지 자급마을 보봉단지를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을 느꼈다. 보봉은 석유, 석탄, 원자력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이용을 거부하고, 태양광과 바이오매스(음식찌꺼기나 쓰레기를 발효시켜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를 주 에너지원으로 선택하였다. 또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과 물 사용을 최소화하여 순환적 생태시스템이 이루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보봉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태양광으로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마을 외곽의 주차장이었다. 마을 내부에는 보행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마을 외곽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 방지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우리군도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마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일조량이 풍부한 우리의 군이 이 같은 마을을 조성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 유럽연합의회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랐다.
- 첫 번째로 엄청난 규모의 의석수를 보고 놀랐다. 900여석이 넘는 자리는 EU가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한 첫 번째 광경이었다.
- 두 번째로 놀라게 된 이유는 바로 나라의 국적을 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지역적인 특색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일도 같은 생각과 정치적인 철학을 가진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정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Ⅳ. 연수 사진 모음



국가 및 지방의회 방문 사진

◎ 유럽연합의회



△ 유럽 연합의회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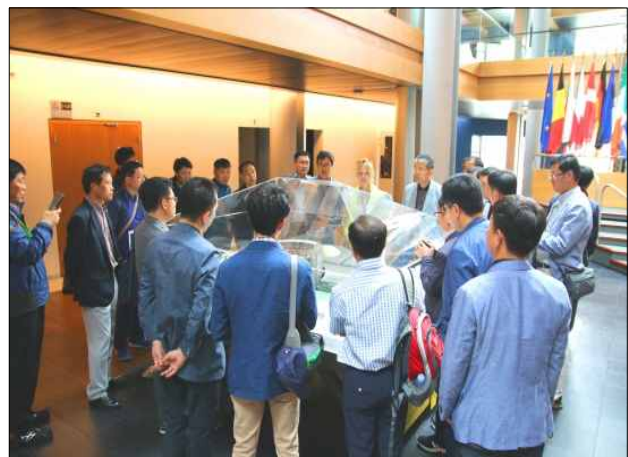
△ 본회의장



△ 상임위 회의장에서 간담회 장면



△ 브리핑실



△ 의회 연합 내부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연방의회



△ 비엔나 시의회



△ 비엔나 시청



△ 팔츠부르크 시의회 담당자 면담



△ 팔츠부르크 시의회 내부

◎ 기타 국가



△ 스위스 연방의회



△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의회